

북한이탈주민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과 유형 예측요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김희진* 김혜진**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 논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통해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의 유형들을 도출하고, 각 사회적응 유형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집단 내 이질적 하위집단을 구별해 내어 유형화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선행연구들이 택하였던 변인 중심적 접근을 벗어나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에 거주하는(주로 서울과 경기도) 20~70대의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응의 양상에 따라 분류된 세 유형은 사회적응의 전 영역에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안정형(27.0%)', 사회적 교류에서 우호적인 '우호형(42.5%)', 사회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한형(30.5%)'이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안정형과 비교시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연령, 사회적 차별인지였고, 안정형과 비교시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연령,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차별인지,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 제1저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 교신저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개발본부 심리부검부 대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여성, 사회적응, 사회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 사람 중심 접근법

I. 서론

인간에게 사회적 적응이란 생을 다하기까지 겪어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사회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응은 개인이 사회 환경에 맞추어 삶을 영위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욕구와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조율, 그리고 그 결과 개인이 느끼는 내적 만족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응은 그 자체로 완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만족스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연속선상의 개념인 것이다(정윤정·김희진 2014, 13-14). 특히 이주민이나 난민 등과 같이 출신국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만나는 경우 적응과 관련된 문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학술적, 정책적 관심도 높아진다.

북한이탈주민 역시도 탈북과정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경험을 하며 남한에 입국했지만 그것으로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사회와는 판이한 체제와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남한사회 적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만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대거 증가하였고 이후 이들의 적응을 위한 법과 제도들의 정비와 함께 관련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신체적 적응, 언어적 적응, 부부 적응, 가족 간 적응, 경제적 적응, 교육 영역의 적응, 직장 적응, 정신건강과 적응, 사회자본과 적응, 차별지각과 적응, 종교와 적응, 정책과 적응 등(김혜경·김은정 2021, 116; 김

현아 외 2016; 정서윤 외 2022, 11; 정윤경·김희진 2014; Um et al. 2015) 가
히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져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모형을 보면 이들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변수들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사회적응,
혹은 사회적응의 하위변수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경로들과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
응과 관련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변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이 남한사회에
서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유용
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들
이 그 핵심적 내용이나 대상,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 및 분석 방법론
에서 차별성이 적어서 그 연구 결과에서도 새로운 함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있었다(김혜경·김은정 2021; 김기창 2015).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의 종합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개입 전략
의 근거를 마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변
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의 응답패턴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
으로 드러나는 적응의 유형을 찾아내고 이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72%에 달하며 그들 중 대다수는 탈북의
첫 단계부터 남한 정착 및 가족의 생계 책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적다는 지
적이 있어 왔다(김기창 2015, 202-203).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 입국 후 살
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적응의 유형들을 응답자의 응답패턴에 근거
하여 분석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Bulut & Gayman 2020, 15; Damen
et al. 2022, 77; Nickerson et al. 2021, 3; O'Donnell et al. 2017; Tisseyre et
al. 2021, 1-2)을 통해 도출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러한 사회
적 적응 유형과 관련된 변수들을 규명하려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응

Lazarus(1984)는 사회적응을,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인지 및 수용하면서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의 인지, 감정, 환경 평가, 대응 등의 적응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Smith & Kirby 2011, 2-5). Ward와 Kennedy(1999, 660-661)는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조율하고 협상하며(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런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 및 정도(심리적 적응)로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가 내포하는 사회적응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수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응에 대한 명확하며 널리 인정되는 단일한 정의나 기준, 혹은 척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Terziev(2019)는 여러 전형적인 시스템의 연속성을 추적하면서 사회적 적응의 과정에 대한 분류와 ‘사회적응’이 포함하는 의미를 포괄하여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응은 인간이 새 환경에 적응하는 가변적 과정을 나타내며 (accommodative/adaptive variability), 둘째, 사회적응은 적응 과정의 결과를 의미하고, 셋째, 사회적응은 인간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특정한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명 유지나 물질적 풍요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 등 (teleologicity and pragmatism of adaptation)이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넷째, 사회적응(적응성)은 목표와 활동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달성된 것과의 일치를 의미하며, 다섯째, 사회적응은 적응 주체와 환경 사이에 설정되는 균형(상대적 조화)의 비중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고(homostatic approach), 여섯째로 사회적응은 항상성 법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적응 주체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homeorezis)임을 제시하고 있다(Terziev 2019).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응은 무엇이다’의 규정을 넘어 사회적응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의 광의의 통찰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응은 환경에의 단순 순응이 아니라 주체적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과정뿐 아니라 그것으로 획득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의미함과 동시

에 적응 주체가 새로운 환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환경과 적응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상호변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그 목표와 적응 과정의 결과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의 일치와 부합성을 보여주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응이란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며 안정성을 확보,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원칙을 따름과 동시에 이전과 다른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라는 점도 발견하게 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출신국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듯 북한이탈주민들 역시도 완전히 다른 체제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 남한사회에 입국하여 쉽지 않은 적응과정을 겪어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 중반을 지나면서, 1990년 후반부터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대의 연구 초기에는 국가정책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나 남한사회의 체제와 생활상의 적응의 관계, 사상적·심리적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적응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탈북동기와 탈북과정과 적응,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응, 언어·문화적 적응, 정신건강과 적응, 취업이나 직장 영역에서의 적응, 가족 및 부부간의 적응, 인 지적 차별 및 소속감과 적응, 적응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 관련 연구 등(김혜경·김은정 2021, 116; 김희진 2013, 2-14; 정서윤 외 2022, 11; 조수연·원지현 2018, 1-2)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의 주제들은 사회문화적 적응이 35.20%, 남한사회 적응 26.82%, 심리적 적응 16.76%, 경제적 적응 12.85%, 학교 적응이 8.3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경·김은정 2021, 124)

이렇듯 사회적응이란 삶 전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전 생애에 걸친 사회화 과정 및 다양한 인적 요소들 간의 사회적 통합과도 연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혜경과 김영란(2000, 180-186) 역시도 북

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인간생태학적 이론 및 난민과 이주민의 실질적인 적응 영역들에 대한 분석들 등에 기반하여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해, 남한사회의 환경과 사회구조 속에 편입되어 이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활양식이나 규범 등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남한사회의 특성에 대해 그들만의 주체적 태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측정할 때에도 남한사회에의 참여, 대인관계와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정서, 언어 및 문화적 적응, 직업과 직장 영역의 만족도, 편견과 차별 관련 경험,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남한에 대한 소속감, 법과 제도적 적응 등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그 변인들의 다양성이 더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적응유연성, 공동체 및 미디어 경험, 차별과 배제, 대인관계 등이 있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고독감, 외상사건 및 PTSD 등이 다루어졌으며, 문화적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교육, 문화갈등 등이 거론되었고, 가족요인으로는 가족기능, 부모 및 가족지지 등이 다루어졌다. 사회적응의 하위 영역으로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안정감, 절망감, PTSD,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살생각과 함께 가족요인들이 다루어졌다. 사회적응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차별 및 편견, 사회적 지위, 직업교육 등과 함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자립의지, 창업의도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영향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경·김은정 2021, 118- 119).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연구를 살펴볼 때 북한이탈 여성들의 적응 특성들이 비중있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된다.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은 72%를 나타내고 있다.¹⁾ 통일

1) 통일부 (2024),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www.unikorea.go.kr. (2024년 5월 15일 검색)

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2024)를 살펴보면, 대규모 식량난과 김일성 사망, 배급 중단 등의 정치·사회적 여파가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여성 중심의 탈북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성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당해년도 여성비율을 보면 2002년부터 여성비율이 55%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60%대에서 2006년부터는 70%대로 상승, 2015년부터는 80% 대로 진입하여 코로나 위기로 인해 탈북 자체에 강력한 제한이 가해졌던 3여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80% 이상을 유지하였고 그 누적치가 72%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대다수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창 2015, 202-203). 여성 주도로 이루어진 탈북의 첫 단계에서부터 대부분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탈북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온갖 여성폭력과 인권침해의 현장에 노출되면서 가까스로 남한사회의 일원이 되어서도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족들의 후속 탈북을 돕게 되며 그렇게 구성된 남한에서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생계 책임까지 지는 경우도 많았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출신국 구성을 보면 북남북녀, 남남북녀, 북녀와 조선족, 북녀와 한족 등 다양한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남한사회에서의 생존 방식의 다양한 선택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지난한 탈북여정과 다양한 부부조합의 중심에는 북한이탈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기창 2015, 204-205; 김희진·정윤경 2016, 252; Kim et al. 2017, 68-6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여성들이 북한이탈주민 중 거의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북한이탈 기혼여성은 생계를 위한 직장 일과 가족 부양 및 가사노동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고를 지는 일이 많기에 이들 여성들의 남한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김혜경·김은정 2021, 127-129).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방법론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동안 발표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 관련 연구들의 핵심적 내용과 데이터 접근 및 분석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

구의 상세 키워드 등만 조금씩 다를 뿐 연구대상이나 관점, 이들의 적응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석 등의 분석방법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거기서 도출된 연구 결과 역시도 일반론적 논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프레임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김혜경·김은정 2021, 116).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측정도구들이 보다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나아가 본 주제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다학제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김광웅 외 2012, 67).

신원식과 배지철(2010)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응을 유형화함으로써 사회적응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보여주었다. 남한적응에 관한 수십 개의 진술문을 놓고 북한이탈주민이 Q분류를 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도출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는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남한살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그들의 내적 인식의 탐색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과정에서 주관적 편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리서치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즉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세를 이루었던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응의 유형들을 찾아내고 그 유형별 특성과 각 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려 한다.

3.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s Analysis: LPA)은 최근 많이 활용되는 혼합모형 중 하나로 각 개인이 응답한 연속형 변인들을 바탕으로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잠재집단의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이때, 범주형 변수에선 잠재계층분석 방법이, 연속형 변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특히, 파악된 잠재 집단 유형과 특성을 토대로 정책 대상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최재성·김혜진 2019, 20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각 개인들의 사회적응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 내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구별해 내어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질성의 포착이 사람 중심의 통계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는 변수가 아니라 개인이 된다(Bulut & Gayman 2020, 14; Damen et al. 2022, 77; Nickerson et al. 2021, 3).

또한 각 개인이 응답한 값에 기초하여 그 데이터에서 파생된 유사한 그룹으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차별화되는지의 집단적 조합을 통계적 계산을 통해 도출하기 때문에(Damen et al. 2022, 77) 군집분석 등과 같은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군집 수의 결정에 작용하는 분석자의 주관적 편향성을 배제하게 하여 더 높은 분석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강윤경 외 2019, 43-44; Damen et al. 2022, 78)

이러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또는 잠재계층분석과 같은 혼합모형은 난민이나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분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Bulut와 Gayman(2020)은 미국 내 라틴계 이주민의 문화적응 연구에서 Berry(1980)의 문화변용 모델을 기본 연구틀로 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이주민 집단을 분리, 부분 분리, 이문화 및 주변화의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변용 프로파일을 정신건강 수준과 비교하면서 도출된 유형 중 가장 한계 계층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다. 아울러 라틴계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원과 특히 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ulut & Gayman 2020, 13).

Newnham과 그 동료들은(2019)은 호주에서 난민 신청과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자 제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자 불안과 심리적 결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매우 높음’(16.1%), ‘높음’(38.1%), ‘중간’

(31.5%), ‘낮음’(14.3%)의 네 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불안정한 임시 비자를 가진 경우 영주권을 소유한 경우보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여성은 높거나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임시 비자가 이주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적시에 비자를 처리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Newnham et al. 2019, 763).

Damen과 그 연구팀은(2022)은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의 데이터를 통해 이주 초기의 난민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출발 위치를 탐색하고 있다. 사회적 접촉과 정서적 유대, 그리고 문화가치 지향 등의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원점 확보형’, ‘이중 결합형’, ‘목적지 중심형’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주 전에 대학 수학 및 사회로부터의 수용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적이며, 네덜란드어를 구사하는 경우 ‘목적지 중심’ 유형을 나타내며, 시리아에서 학교를 다녔고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했으며, 네덜란드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원점 확보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Damen et al. 2022, 77).

Rawers와 그 동료들은(2024) 터키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트라우마 경험의 발생에 대해 연구하고자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잠재 계층의 인구 사회학적 예측 변수를 탐색하고 PTSD, CPTSD, 우울, 그리고 불안 증상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상노출을 기준으로 ‘복합외상’, ‘전쟁과 인간에 의한 고통’, ‘저노출 및 전투노출’의 3개 잠재계층 유형이 확인되었다. ‘저노출’ 유형에 비해 불안증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복합외상’ 유형임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PTSD, CPTSD, 우울증, 불안 진단의 확률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wers et al. 2024, 1).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용성을 가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특성에 있어 상호 구별된 유형들을 확인하고 사회적응 유형의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도출된 각 잠재집단 유형을 구분짓는 예측요인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20~70대의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도와 전남, 그리고 충청에 거주하는 여성도 소수 인원 참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특별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있어 확률표집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sampling)법을 활용하여 최초 소개자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눈덩이 표집은 최초 seed를 한 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 seed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전체 연구 표본 구성에 있어 모집 편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spondent-driven sampling의 원칙을 추가 적용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4명의 seed를 추천받아 시작하였고 소개 체인도 가급적 길게 가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모집 편향을 감소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할 때 초기 seed가 표본의 최종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연구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Raifman et al. 2022, 39-40; Um et al. 2021, 487).

사전에 조사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조사원들이 북한이탈 여성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내용, 비밀 보장 의무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에 동의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면 조사자는 현장에서 전체 설문지를 확인하여 응답이 누락되거나 분명하지 않게 체크된 부분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3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3월에 숭실대학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응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적응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남한사회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인 활동에의 참여, 사람에 대한 접촉 태도와 감정, 언어와 문화적응, 편견과 차별경험, 직업 및 직장 만족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떠난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 남한사회 소속감,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법과 제도 적응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로 구성되었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부정문으로 표현된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응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912로 매우 높았다.

<표 1>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	나는 남한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접촉 태도와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언어 적응	남한에서 사용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문화 적응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안된다
차별 경험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직업 및 직장 만족도	직업 및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편견 경험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떠난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난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남한사회 소속감	나는 남한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 적응	남한 사회의 법과 제도에 적응이 안된다

•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문항 역코딩 처리

(2) 사회적응 영향 변수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과 관련 있는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차별인지의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연령(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교육수준, 월평균소득을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북한(1=무학, 2=소학교, 3=중학교, 4=고등전문학교, 5=대학, 6=준박사 이상)과 남한(0=학교나 정규교육과정 다닌 경험 없음, 1=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학졸, 5=대졸, 6=대학원졸)에서의 교육수준을 통합하여 초졸이하=1, 중졸=2, 고졸=3, 대졸이상=4로 재코딩하였다. 가계월소득은 북한이탈 여성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실수령액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양옥경(1994)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① 의식주, ② 친구, ③ 가족 및 친척, ④ 신체 및 정신건강, ⑤ 일(직업), ⑥ 경제, ⑦ 대인관계, ⑧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⑨ 행복감, ⑩ 자아감 및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하위 척도들 사이에 유의미한 변별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집단에 적용 가능하게 개발되었다(양옥경 1994).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서 Cronbach’s $\alpha=.921$ 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Multidimensional Scale of Social Support(Zimet et al. 1988)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차원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9$ 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여성의 차별경험은 Williams 등(1997)의 Day-to-Day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 9문항에서 남한사회에 맞지 않는 문항 1개는 제외하고 남한사회의 차별양상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문항 2개를 추가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10문항

척도는 그간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에 여러 번 사용되었다(Kim & Yoo 2014; Um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인지된 차별경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의 부호화 및 오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척도의 신뢰도 분석과 각 변인들의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Mplus 6.12를 활용하여 사회적응 유형 분류를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 특성을 파악하고자 도출된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별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χ^2 test, ANOVA), 각 사회적응 유형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 모형은 적합도 지수(AIC, BIC, SABIC), 통계적 유의성 검증(Lo-Mendell-Rubin LRT), 그리고 집단 간 분류 정확도(Entropy)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즉,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각각의 지수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LMR(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검증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엔트로피(Entropy)는 모형의 잠재집단 간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유형 집단 간 분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모형을 결정하게 된다.

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적응 지표 기초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26.2%로 가장 많았고, 30대(23.3%), 60대 이상(21.9%), 50대(21.0%)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북한과 남한에서의 학력을 통합한 결과, 중졸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이상(28.8%), 고졸(20.6%), 초졸 이하(1.7%)로 나타났다. 가계 월소득은 평균 245.72만원(표준편차 185.72)으로 나타나 북한이탈 여성 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삶의 만족도(3.23점, 표준편차 .766)와 사회적 지지(3.62, 표준편차 .696)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았으며, 사회적 차별 경험은 평균 1.58(표준편차 .61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233)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대	20대	18	7.7
	30대	54	23.2
	40대	61	26.2
	50대	49	21.0
	60대 이상	51	21.9
교육수준	초졸이하	4	1.7
	중졸	114	48.9
	고졸	48	20.6
	대졸이상	67	2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계월소득(만원)		245.72	185.72
삶의 만족		3.23	.766
사회적 지지		3.62	.696
사회적 차별인지		1.58	.615

2.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 분석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의 사회적응 지표를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상이하게 사회적응을 경험하는 북한이탈 여성이 어떠한 잠재 집단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 유형을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SABIC와 χ^2 검증인 LMRT와 BLRT, 분류의 질인 엔트로피(Entropy) 지수, 해석의 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잠재집단의 개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적합도 지수와 유의도, 엔트로피 지수 등을 비교한 결과, 분류의 질인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모두 0.9 이상이나 3개 집단 모형까지 AIC, BIC, SSABIC의 값이 감소하다가 4개 집단 모형에서 BIC가 증가하였고, LMRT(0.0762) 또한 4개 집단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4개 집단 모형은 기각되고 3개의 잠재집단으로 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최종 모형이 선정되었다.

<표 3> 모형 적합도 검증(N=233)

구분	AIC	BIC	SSABIC	LMR LRT p value	BLRT	Entropy	잠재계층 분류율 %			
							1	2	3	4
1	7633.672	7799.322	7647.185	na	na	-	100	-	-	-
2	6674.797	7009.547	6702.105	.0000	.0000	0.958	35.2	64.8	-	-
3	6244.195	6748.047	6285.299	.0000	.0000	0.963	27.0	42.5	30.5	-
4	6098.343	6771.295	6153.241	.0762	.0000	0.977	26.2	31.3	11.6	30.9

▪ na=not applicable

선정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추정치를 토대로 유형별 사회적응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 <그림 1>과 같다.

집단 1은 전체 집단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가장 높은 사회적응 수준을 보였다. 특히, 남한사회 소속감, 직업 및 직장생활 만족, 남한사

회의 법과 제도 적응 등의 영역에서 높은 추정치를 보였다. 즉 세 집단 중 가장 사회적응이 높아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집단이기에 이들 집단을 1을 ‘안정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응답 북한이탈 여성의 27.0%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2는 세 집단 중 남한사회에 중간 수준의 적응도를 보이는 가운데 연구대상 북한이탈 여성의 42.5%를 나타내어 세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남한사회가 특별히 자신에 대해 적대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사람들과의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접촉 등에서 추정치가 높아 사회적 교류에는 적응적 양상을 보이거나 아직 사회적응 단계에서 안정적 정착 수준으로 진입하지 못한 집단이다. 이에 집단을 2를 ‘우호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떠나온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언어, 문화, 법과 제도 등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사회적 소속감을 보이는 등 모든 사회적응 영역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특성을 나타냈다. 즉, 남한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며,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남한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하고, 남한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나 외래어 등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 친구들을 떠나온 사실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 하며, 직업 및 직장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고 타인이 나에 대해 적대감,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에 세 유형 중 가장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기에 집단을 3을 ‘제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응답 북한이탈 여성의 30.5%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호형’ 다음으로 큰 비중을 나타냈다. 모든 사회적응 지표에서 다중적이고 강도 높은 어려움이 포착되고 있으므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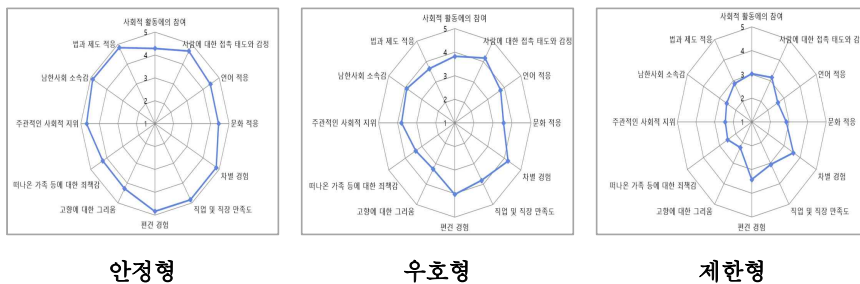
앞서 척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응 척도의 모든 문항이 부정적 표현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음 <표 4>와 <그림 1>에서 각 문항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언어적응, 문화적응의 점수가 높다면 그 영역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의미이며, 차별경험, 편견경험,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명명된 점수가 높다면 그 역시 차별 및 편견을 느낀 경험이 적고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의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응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사회적응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집단별 추정치(N=233)

지표	집단 1 안정형 27.0%		집단 2 우호형 42.5%		집단 3 제한형 30.5%	
	M	S.E.	M	S.E.	M	S.E.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	4.29	0.14	3.83	0.12	3.03	0.10
사람에 대한 접촉 태도와 감정	4.67	0.08	4.18	0.06	3.16	0.10
언어 적응	4.46	0.10	3.78	0.07	2.62	0.08
문화 적응	4.44	0.10	3.56	0.09	2.86	0.07
차별 경험	4.83	0.05	4.23	0.06	3.59	0.09
직업 및 직장 만족도	4.84	0.06	3.81	0.07	3.06	0.10
편견 경험	4.83	0.67	4.03	0.05	3.42	0.09
고향에 대한 그리움	4.27	0.13	3.26	0.07	2.24	0.12
떠나온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	4.24	0.15	3.36	0.08	2.49	0.13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4.68	0.09	3.79	0.07	2.42	0.10
남한사회 소속감	4.87	0.48	3.91	0.65	2.56	0.09
법과 제도 적응	4.84	0.05	3.66	0.64	2.86	0.08

<그림 1>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



다음 <표 5>는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잠재집단별 주요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안정형’은 세 유형 중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북한이탈 여성이 42.9%로 전체 유형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이

41.79세(SD=10.99세)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가계월소득은 약 평균 296만원(SD=244.11만원)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삶의 만족 수준(평균 3.54점, SD=0.81점)과 사회적 지지(평균 3.93점, SD=0.68점) 또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차별인지(평균 1.15점, SD=0.26점)는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표 5> 사회적 적응 유형별 개인 특성(N=233)

구분		안정형	우호형	제한형	χ ² /F
		(=a, 27.0%)	(=b, 42.5%)	(=c, 30.5%)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2(2.0)	2(2.8)	15.561*
	중졸	24(38.1)	45(45.5)	45(63.4)	
	고졸	12(19.0)	25(25.3)	11(15.5)	
	대졸이상	27(42.9)	27(27.3)	13(18.3)	
연령		41.79(10.99)	48.04(11.24)	50.66(13.52)	9.723**
사후검증		c, b > a			
가계월소득(만원)		296.08(211.70)	244.11(169.95)	203.27(173.41)	4.293*
사후검증		a > c			
삶의 만족		3.54(0.81)	3.33(0.67)	2.81(0.67)	19.528***
사후검증		a, b > c			
사회적 차별인지		1.15(0.26)	1.41(0.44)	2.19(0.58)	99.924***
사후검증		c > b > a			
사회적 지지		3.93(0.68)	3.70(0.57)	3.24(0.71)	20.768***
사후검증		a > b > c			

* p <.05, ** p <.01, *** p <.000

‘우호형’은 중졸(45.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교육수준이 ‘안정형’보다는 낮았고 ‘제한형’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8.04세(SD=11.24세)로 나타났고 연령을 포함하여 가계월소득 평균(244만원, SD=169.95만원), 삶의 만족 수준(평균 3.33점, SD=0.67점), 사회적 지지(평균 3.70점, SD=0.57점), 사회적 차별인지(평균 1.41점, SD=0.44점)가 모두 세 유형 중 중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위험 집단인 ‘제한형’은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북한이탈 여성이 66.2%

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유형 중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고, 평균연령은 50.66세(SD=13.52세)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았던 반면, 가계월소득(평균 203만원, SD=173.41만원)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삶의 만족도 수준(평균 3.00점, SD=0.70점)과 사회적 지지(평균 3.24점, SD=0.71점) 또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반면 사회적 차별인지(평균 2.19점, SD=0.58점)는 가장 높았다.

3.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 예측요인 분석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결과로 보면 ‘안정형’과 비교하여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은 연령($p < .05$)과 사회적 차별인지($p < .01$)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가계월소득, 삶의 만족,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비해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0.96배(1/1.040) 정도 높았다. ‘안정형’과 비교시 사회적 차별을 높게 경험한 북한이탈 여성일수록 ‘안정형’에 비해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은 0.2배 높았다.

<표 6> 북한이탈 여성의 사회적응 유형의 예측요인

구분	안정형vs우호형			안정형vs제한형		
	B	SE	OR	B	SE	OR
연령	0.044*	0.017	1.040	0.049*	0.022	1.050
교육수준	-0.118	0.207	0.889	-0.359	0.309	0.698
가계월소득(만원)	0.000	0.001	1.000	0.001	0.001	1.001
삶의 만족	-0.066	0.286	0.936	-0.745†	0.420	0.475
사회적 차별인지	1.832**	0.569	6.247	4.777***	0.710	118.717
사회적 지지	-0.364	0.334	0.695	-0.952*	0.454	0.386

• NOTE 기준집단: 사회적응유형(안정형)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안정형’과 비교하여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은 연령(p

<.05), 삶의 만족($p<.01$), 사회적 차별인지($p<.001$), 사회적 지지($p<.0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계월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비해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은 0.95배 높았으며, ‘안정형’보다 삶의 만족(2.11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2.59배), 사회적 차별인지가 높을수록(0.01배)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잠재집단 유형을 구분짓는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이탈 여성의 개인 응답에 의해 측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들 여성의 사회적응의 다양한 양상을 유형으로서 파악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유형별 특성과 각 유형을 결정짓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이 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선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적응 유형은 3개 잠재집단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형’, ‘우호형’, ‘제한형’으로 명명하였다.

‘안정형’은 연구 대상 북한이탈 여성의 27.0%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모든 집단유형 중 가장 높은 적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한사회 소속감, 직업 및 직장생활 만족,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 적응 등의 영역에서 높은 추정치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서도 높은 적응 수준을 보여주어, 남한 사회에 가장 안정적으로 적응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호형’은 북한이탈 기혼여성 연구대상자의 42.5%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지니며,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감이나 편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았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접촉하는 등 사회적 교류에 우호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아직 전반적인 사회적응 단계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진입하지 못한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제한형’은 북한이탈 여성 연구대상자의 30.5%를 차지하였는

데, 이들은 그리움과 죄책감 등을 자주 느낌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할 우려가 있으며, 언어, 문화, 법과 제도 등에의 적응 어려움과 낮은 사회적 소속감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적응 영역에서 적응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응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유형이다.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별로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정형’은 세 유형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과 가계월소득,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점수가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과 사회적 차별인지 수준이 가장 낮았다. ‘우호형’은 교육수준, 평균연령, 가계 월평균소득,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차별인지 수준이 모두 세 유형 중 중간에 위치하였다. 반면 ‘제한형’은 중졸 이하 학력의 비율, 평균연령, 차별인지 수준이 세 계층 중 가장 높았고 가계월소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점수는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사회적응의 패턴이 특정한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의 분석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혜경·김은정 2021, 118-119; Newnham et al. 2019, 763; Nickerson et al. 2021, 3). 먼저 ‘안정형’과 비교하여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연령과 사회적 차별인지로 확인되었기에, 연령과 사회적 차별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비해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 높았다. 다음으로 ‘안정형’과 비교하여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삶의 만족,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차별인지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차별인지가 높을수록 ‘안정형’에 비해 ‘제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조사대상 중 ‘안정형’에 속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고, 사회적 교류의 영역에서는 우호적이나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있어서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우호형’이 42.5%,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 사회적응도가 낮게 나타난 ‘제한형’의 경우가 30.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경종의 의미를 가진다. 분석 내용으로 볼 때 ‘우호형’ 그룹에 있어서도 개입의 필요가 절실하며 ‘제한형’의 경우는 사회적응 전반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북한이탈 여성 그룹에서 사회적응에서의 고위험군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정책과 제도, 남한 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총체적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이탈 여성들을 되도록 ‘안정형’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안정형’과 비교할 때 ‘우호형’에 작용하는 변수는 연령과 사회적 차별인지로 확인되었다. 우선 연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우호형’에서 연령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핍을 찾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우호형’은 사람에 대해 우호적이고 사회적 관계와 활동 등에 적극적이며 남한으로부터의 편견이나 차별인지 경험도 ‘제한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유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인지의 수준이 ‘안정형’에 속할 만큼 충분히 낮지 않은 경우 ‘우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정형’과 비교할 때 ‘제한형’에 작용하는 변수는 연령, 삶의 만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차별인지로 나타났다. ‘제한형’의 경우 높은 연령의 인구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경우 사회적응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형’에 속한 경우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차별인지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입한다면 그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더 나은 지점으로 옮겨가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의거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근거하여²⁾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들을 해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그 이전과는 규모가 다른 대대적인 탈북이 일어나 이들이 우리 사회의 비중 있는 존재가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

2)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202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35&efYd=20230328#00002024>. (2024년 6월 13일 검색)

이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명시된 대로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관련 정책 영역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착지원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적절성과 적합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려 한다. 우선 ‘우호형’과 ‘제한형’ 모두에서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고연령이 도출되었다. 고연령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단일한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 취약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고연령의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써(최재성·김혜진 2019, 215-216)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며 그 외에도 남한살이에서의 심리적·경제적 안정감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호형’과 ‘제한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또 다른 요인은 사회적 차별인지였다.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는 외국 출신의 이주민과 동질한 다문화 카테고리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국민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타국에서 온 이주민보다 오히려 더 깊은 편견과 차별 행동을 보여준다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양계민·이우영 2016, 133). 특별히 가장 낮은 적응 유형에 속하는 ‘제한형’ 여성들의 차별인지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한 것이 없다.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다문화 감수성 등의 교육을 강화하되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지는 양가감정,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부담감으로 회피하고 싶은 이중적 감정을 해소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함께 이루어 갈 존재들로 수용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독일의 사례처럼 남한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의 프로그램을 항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한형’에 속한 가능성을 높이는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였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삶 속에서 원하던 것을 실제로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스런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만족에는 상당히 개인적인 잣대가 작용할 수 있고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 그중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심리상담, 법률지원 상담 등의 상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상담사를 배출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우울과 PTSD 등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상담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교사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기에 스트레스나 역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변수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제한형’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특히 학력도, 월수입도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은 높으며 차별인지도 높고 사회적 지지는 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립의 가능성은 높고 네트워크는 더욱 축소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족 간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육 및 봉사, 훈련 등의 기회를 풍성히 제공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데이터 분석의 특성인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에서 벗어나, 응답자의 응답패턴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을 사용하여 사회적응 경험의 유형을 찾아내고 이들 유형에 속하게 하는 영향 요인들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응 척도의 점수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잠재적 특성들을 구분해 내는 작업

을 통해 사회적응의 다양한 면모(Terziev 2019)의 규명과 함께 상호배타성을 가진 집단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응 패턴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발견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하위 그룹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확률표집을 하기 어려운 연구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탈 여성 전체 모집단에까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눈덩이 표집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을 적용하였기에 단순 임의표집 방법으로 인한 연구결과보다는 일반화 수준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유형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복적인 연구 시도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혀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72%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연구, 또 그와 함께 30% 이하의 인구비중을 차지하나 또 다른 적응패턴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북한이탈 남성에 대한 연구가 따로 혹은 함께, 비교 연구 등으로 진행된다면 성별로 세부적인 특성을 구분해 낸과 동시에 성별로 더 적합한 개입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광웅·김용상·문병기 (2012).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3호, pp. 41-70.
- 김기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호, 제1호, pp. 201-225.
- 김현아·김요완·조영아 (2016).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적응과정 분석: CQR과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3호, pp. 21-53.
- 김혜경·김은정 (202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제66권, pp. 115-132.
- 김희진 (2013). “탈북여성의 정신건강과 부부적응을 위한 TSL 가족프로그램 개입 효과: 의생명사회 과학적 관점(Bio-Medico-Social(BMS) Perspective)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정윤경 (2016).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자활효능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51권, pp. 251-280.
- 신원식·배지철 (20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pp. 39-60.
- 양계민·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감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0권, 제1호, pp. 131-152.
- 정서윤·박성철·조정래 (20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자본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종단적 분석(2017-2021).” 『연구총서』, 남북하나재단, pp. 1-155.
- 정윤경·김희진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4호, pp. 143-167.
- 조수연·원지현 (201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관련 연구 동향: 심리, 정서적 특성 중심으로.” 『2018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상담학회, pp. 1-5.
- 최재성·김혜진 (2019). “노인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분석: 다중적 배제의 잠재집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3권, pp. 193-224.
- Bulut, E. and M. D. Gayman (2020). “A latent class analysis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Latino immigrant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76,

pp. 13-25.

- Damen, R., W. Huijnk and J. Dagevos (2022). "Socio-cultural starting positions among recently arrived Syrian refugees in the Netherlands: A latent clas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87, pp. 72-84.
- Kim, H. J. and H. Y. Yoo (2014). "National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6. No. 4, pp. 447-469.
- Kim, J. Y., H. J. Kim, K. Choi and B. Nam (2017). "Mental health conditions amo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5. No. 2, pp. 68-79.
- Newnham, E. A., A. Pearman, S. Olinga-Shannon and A. Nickerson (2019).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visa insecurity for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A latent clas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64, pp. 763-772.
- Nickerson, A., Y. Byrow, A. Rasmussen, M. O'Donnell, R. Bryant, S. Murphy ... and B. Liddell (2021). "Profiles of exposure to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in refugees living in Australia."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Vol. 30, pp. 1-12.
- O'Donnell, M. L., I. Schaefer, T. Varker, D. Kartal, D. Forbes, R. A. Bryant ... and Z. Steel (2017).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centered approaches to investigating patterns of trauma expos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57, pp. 208-225.
- Raifman, S., M. A. DeVost, J. C. Digitale, Y. H. Chen and M. D. Morris (2022). "Respondent-driven sampling: a sampling method for hard-to-reach populations and beyond." *Current Epidemiology Reports*. Vol. 9. No. 1, pp. 38-47.
- Rawers, C., E. Redican, E. H. Alpay, E. McElroy and M. Shevlin (2024). "Multiple trauma exposure and psychopathology in Syrian refugees living in Turkey: A latent class analysis." *Acta Psychologica*. Vol. 245, pp. 1-9.
- Smith, C. A. and L. D. Kirby (2011). "The role of appraisal and emotion in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Stress Science: Biology, psychology, and healt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p. 195-208.
- Terziev, V. (2019). "Social adaptation as an element of social policy". *IJASOS-*

International E-journal of Advances in Social Sciences. Vol. 5. No. 13, pp. 275-282.

- Tisseyre, L., E. Lacourse, R. Labelle, S. Paquin and C. M. Herba (2021).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studying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vulnerability factors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in a Canadian longitudin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33. No. 1, pp. 351-362.
- Um, M. Y., I. Chi, H. J. Kim, L. A. Palinkas and J. Y. Kim (2015).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131, pp. 107-113.
- Um, M. Y., J. O. Lee, H. J. Kim, E. Rice and L. A. Palinkas (2021). "Testing the pathway from pre-migration sexual violence to suicide-related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living in South Korea: do social networks matt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56, pp. 485-495.
- Ward, C. and A. Kennedy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3. No. 4, pp. 659-677.

2. 기타

- 장혜경·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202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35&efYd=20230328#00002024>. (2024년 6월 13일 검색)
- 통일부 (2024).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www.unikorea.go.kr. (2024년 5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05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05월 24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06월 17일 |

| ABSTRACT |

**Classes and Predictors of Social Adaptation
among Married North Korean Refugee Women:
Latent Profile Analysis**

Hee Jin Kim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Myongji Univ.)

Hye Jin Kim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lasses of social adaptation among married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using the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predict factors influencing each class of social adapt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is a research methodology aimed at discerning and categorizing diverse subgroups within a given population based on specific variables.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variable-centered approach, this research adopts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ged 20 to 70 predominantly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e analysis revealed three distinctive social adaptation profiles: the 'stable class (27.0%)', demonstrating a high degree of adaptation across all spheres; the 'friendly class (42.5%)', characterized by friendli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restricted class (30.5%)',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ll areas of social adaptation.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factors predicting social adaptation classes. Age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ere more inclined to characterize the 'friendly class' in contrast to the 'stable class', whereas ag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emerged as factors predisposing individuals to the 'restricted class' relative to the 'stable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ffered discussions and alternativ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North Korean refugee women.

- Key words: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Soci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Classes, Latent Profile Analysis, Person-Centered Approach